

# 순천만정원박람회 D-50...분위기 끌어 올린다

### 성공개최 기원 '봄UP 페스타' 개최...2월 4일 전남 22개 시·군 참여 박람회-도심 연결 오천그린광장서 핵심콘텐츠 선 공개·축하공연 등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50여 일 앞두고 성공개최와 관심몰이에 나선다. 순천시는 오는 2월 4일 오후 1시 오천그린광장에서 '봄UP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람회 주최기관인 산림청, 전남도,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한마음으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자리이다.

전남도의 화합의 장과 아울러 서울, 부산 등 항우회에서도 150여명이 함께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봄업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장소인 오천그린광장은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 재해예방시설로만 기능했던 저류지를 사계절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바뀌는 공간으로, 봄UP 페스타 개최와 함께 전 국민 앞에 미리 공개된다. 오천그린광장은 박람회 기간에는 도심과의 연결

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박람회 이후에도 시민들을 위한 만남과 소통의 창구이자 고품격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사는 지역예술인의 사전공연과 4인조 아트 퍼포먼스팀인 페인터스하어로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비전브리핑, 도민 화합 세리모니를 거쳐 카이, 비오, 소유, 김범수, 김희재, 제이위버, 나영 등 세대를 아우르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봄UP페스타는 유튜브(여수MBC뮤직플러스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행사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순천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공식 견배주 '현학(玄鶴)' 공식 시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시는 막걸리 전문가와 외식업계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의 참석자를 초청해 견배주 개발 과정과



지난 26일 노관규(가운데) 순천시장 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견배주 시음회 참석자들이 공식 견배주로 선정된 막걸리 '현학(玄鶴)'을 시음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제품 라인업 등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홍보 안내문 등과 함께 막걸리 3종의 시음 기회를 제공했다. 공식주는 지역 농가 소득 창출과 2023정원박람

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획된 박람회 공식 견배주는 최근 소비 경향과 소비자 기호 등을 반영해 ▲현학 ▲현학-순정(淸) ▲현학-순향(香) 등 총 3종의 막걸리로 개발됐다.

'현학(玄鶴)'은 순천을 상징하는 시조인 흑두루미를 '검을 현(玄)'과 '두루미 학(鶴)'으로 해석한 것으로, '흑두루미의 고귀함을 담은, 순천의 정성과 향기를 담은 막걸리'를 지향해 막걸리 3종 모두 인공감미료 첨가 없이 순천만흑두루미쌀과 고들빼기, 참다래, 백향과 등 순천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빛을 프리미엄 막걸리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정원박람회는 단순히 순천시민의 행사가 아니며, 박람회의 성공은 남해안벨트 구축의 완성이자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전남도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번 봄업페스타에 많이 오셔서 박람회 성공을 함께 기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삼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7개월 동안 개최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천년의 숲' 광양 백운산 겨울 등산객 '손짓'

### 특색 있는 9개 둘레길 코스 126.36km 취향 따라 느긋하게

울긋불긋 겨울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자연과 호흡하며 느긋하게 걷는 백운산 둘레길이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백운산 둘레길 제1코스 '천년의 숲길'은 옥룡사지-외산마을-백운산자연휴양림-금목재-논실로 이어지는 총 10.86km 길이로 약 4시간 소요된다. 장엄한 백운산 능선과 눈맞춤을 걸을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로 천년 숲에 안겨 오래 머무르고 싶은 길이다.

제2코스 '만남이 있는 길'은 논실마을에서 한재와 중한마을을 거쳐 하천마을에 당도하는 총 11.4km로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아름답기 전나무가 인상적이다.

하천마을에서 매화마을로 이어지는 제3코스는 유려한 섬진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섬진강 매화길'로 총 20.3km,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광양과 하동을 잇는 남도대교에서부터 매화마을까지 걷는 코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소학정 매화와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제4코스 '백학동 감꽃길'은 매화마을에서 백학동

마을까지 수어호, 억불봉 등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총 7.2km, 2시간 30분의 가벼운 코스다.

특히, 토기가 막 뛰어가려는 형상을 한 고갯길인 토끼재가 있어 걸은 토끼해인 올해 반드시 찾아 걸어야 할 길이다.

제5코스는 백학동마을-웅동교-죽양마을-국사봉랜드로 이어지는 '외갓집 가는 길'로 어머니 품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정서가 넘쳐나는 14.4km, 5시간 코스다.

옥룡사지-대방마을-대치재-국사봉랜드를 걷는 제6코스 '선비누리길'은 옛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짚신을 신고 대치재를 넘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12.7km, 4시간 코스다.

제7코스 '중흥사 토성길'은 옥룡사지-추산시험장-중흥사-쌍의사-하조마을을 잇는 코스로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엿보고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자연과 호흡하며 느긋하게 걸을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백운산 둘레길.

12.7km, 4시간 코스다.

제8코스 '달 뜨는 길'은 하조마을-성불교-월출재를 잇는 총 8.4km, 4시간 코스로 울창한 숲길과 성불계곡의 맑은 물소리에 영혼까지 상쾌해진다.

최근 전통사찰로 지정된 성불사에서 그윽한 풍경소리를 들으며 지친 다리를 쉬어갈 수 있다.

제9코스인 '함께하는 동행길'은 월출재에서 출발해 효죽마을, 중평마을 등을 지나 하천마을에 도착하는 총 25.4km 대장정으로 8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군, 전입 단체·기업에 장려금 최대 300만원

고흥군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입세대 지원금 대상은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에

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다. 이들 세대에는 지원금 20만원, 자동차세 10만원, 주민세(3년 부과분) 등을 지원한다.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은 전입 인원에 따라 50만~300만원의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입세대 지원금과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전입세대나 기관 등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레고로 코딩 학습...겨울방학 브릭 캠프 개최

###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31일부터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사장 이상철)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브릭캠프 Next-Level' <사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오는 31일을 시작으로 2월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옥곡초소년문화회 집, 2차부터 5차까지는 곡성꿈카울마루에서 진행된다.

이번 겨울 캠프는 1일 3시간 프로그램과 2일 6시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별 교육 특성을 반영해 3종류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곡성 관내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총 105명(관내 87명, 관외 18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한다.

캠프 프로그램 중에는 초등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레고를 활용한 코딩 학습인 체험형 STEAM 교육이 준비돼 있다. 스토리텔링 및 미션 수행 콘텐츠로 운영되며 조립과 코딩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협동심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세일글

##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수용질서 확립 최선"

### 김종곤 순천교도소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출신인 김 소장은 지난 1993년 7급 교정간부로 임용돼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장흥교도소장, 광주교정청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수용질서 확립,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30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김종곤(57) 순천교도소장은 "교정 공무원으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수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소통과 배려를 통한 신뢰를 조성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